

ZERO BASE

by SEOULAUCTION

SeoulAuction × 아트경매

ZERO BASE

by SEOULAUCTION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아트경기'는 경기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진입, 그리고 건강한 미술시장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트경기 작가로서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0인의 시각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일 년간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전시, 아트페어 등의 전시·판매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아트경기 × ZEROBASE'에서는 9인의 아트경기 작가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가와 컬렉터를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ZEROBASE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미술 애호가분들이 아트경기와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술시장은 없을까?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꼭 다수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작가들의 다양성이 그 무엇으로도 제한되지 않고
또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살 수 있고
내가 산 그림이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좋게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컬렉터로서 나만의 개성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는 이러한 시장을 지향합니다.

서울옥션



ZEROBASE

나 광 호

Na KwangHo
b. 1979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석사 졸업
국립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학사 졸업

2023
〈江原圖鑑(강원도감)〉 개인전, OCI 미술관, 서울

2022
〈福嬪圖(복음도)〉 개인전, 이응노의집, 홍성

2019
〈겨울 호랑이 낚새〉 개인전, 뮤지엄 SAN, 원주
〈멀티-액세스 4913〉 단체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Drawing〉 개인전, 박수근미술관, 양구

2015
〈사물학 II : 제작자들의 도시〉 단체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교감〉 단체전, 삼성미술관 Leeum, 서울

blog.naver.com/art369369

구 서 이

Koo SeoYi
b. 198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23
〈걷다 보면〉 개인전, 스타필드 작은 미술관 센트럴 아트리움, 하남
〈The Expansion of Time〉 단체전, 롯데갤러리 Spaziower, 고양

2022
〈고양우수작가 공모전: 고양아티스트365〉 개인전, 고양아람누리
해밭이티, 고양
〈NANT ART MARKET〉 단체전, 서울일삼, 서울

2021
〈호르는 풍경〉 개인전, 사이아트 도큐먼트, 서울
〈제6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단체전, 한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제3회 안산국제아트쇼〉 단체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2020
〈제5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단체전, 한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ASYAAF 2020〉 단체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 기획특별전3: 바람과 혼적 플래그 아트〉 단체전,
정북동 토성, 청주
〈Flat of Orange 초대전〉 2인전, 갤러리 벨레, 서울
〈ASYAAF 2019〉 단체전, DDP 배움터, 서울
〈캠퍼스 아트 페어〉 단체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8
〈ASYAAF 2018〉 단체전, DDP 배움터, 서울
〈AZ1-심층의 피막 초대전〉 단체전, 아르티아테, 서울

@kooseoyi
cargocollective.com/kooseoyi

전 은 진

Jeon EunJin
b. 1985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2023
〈무해한 헛길음:ringwanderung〉 개인전, 행궁길갤러리, 수원

2022
〈초록파편으로〉 개인전, 갤러리 소소, 파주
〈re:side〉 단체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수원 문화재 야행〉 단체전, 수원화성행궁, 중앙문, 수원

2020
〈열,름,조각〉 개인전, 소급나루 작은미술관, 울산

@_jeoneunjin_studio

범 진 용

Beom JinYong
b. 1977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2023
〈방향감각〉 단체전,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그리니〉 단체전, 벚이미술관, 용인

2021
〈OFF-SITE〉 단체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비탈길을 좋아했지〉 단체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20
〈여기까지 쉼쫄아〉 단체전, 쟁쟁갤러리, 광주
〈Spring, Spring, Spring〉 단체전, 우리미술관, 인천

2019
〈잠 못 들고〉 개인전, 리각미술관, 천안
〈00의 시간〉 단체전,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적용방산〉 단체전, 가온갤러리, 인천
〈발신자 조회〉 단체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
〈빈 곳에서의 폭동〉 개인전, 청주창작스튜디오, 청주
〈경원의 깨도〉 단체전, 스페이스k, 과천
〈밤을 잊은 별〉 단체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그리고 구르다〉 단체전, 누크 갤러리, 서울

2017
〈조용한 방〉 개인전, 대안공간 들, 인천
〈풀〉 개인전, 갤러리 밭, 서울
〈세계잡미터〉 단체전, 선광미술관, 인천

2016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단체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별벌동행〉 단체전, OCI미술관, 서울, 군산, 광양, 포항
〈CRESTIVE REPORT〉 단체전, OCI미술관, 서울

@beomjy

양 승 원

Yang SeungWon
b. 1984

런던예술대학교 첼시컬리지오브아트 순수미술 석사 졸업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학사 졸업

2023
〈공중정원〉 단체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다중시선〉 단체전, 금호미술관, 서울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단체전, 문화역서울284, 서울
〈인공의 자연〉 단체전, ii R, 서울

2022
〈달여쓰기〉 개인전, N/A, 서울
〈전시후도록〉 단체전, 웨스, 서울

2021
〈글립스〉 개인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서울
〈뉴 월드 뉴 워드〉 단체전, ACC 아시아창작스튜디오, 평주

2019
〈커버드 모멘트〉 개인전, 화이트컬렉션, 서울
〈사이키델릭 네이처〉 단체전, 보안여관, 서울
〈썸머러브〉 단체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Ctrl+c, Ctrl+v〉 개인전, 송은아트큐브, 서울
〈틀리고 다른 것들, 다르고 틀린 것들〉 개인전, 별관, 서울

2017
〈숨바꼭질〉 개인전, 스튜디오 148, 서울

 @iso_yg

임 철 민

Im CheolMin
b.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졸업

2023
〈제3회한중국제수묵화교류전〉 단체전, 난징시 문화원, 난징시, 중국
〈肅行和行〉 단체전,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서울
〈용동묵조〉 단체전, 타오위안시 정부문화국, 타오위안, 대만

2022
〈대부야행大阜夜行〉 개인전, 북촌전시실, 서울
〈광주화무진〉 단체전, kjsang생아트홀, 평주

2021
〈여비아박화월반〉 개인전, Cetacea * Art, 타이베이, 대만
〈墨, 펜데믹 시대의 표상〉 단체전, 아트센터 집, 안성
〈용동묵조〉 단체전, Aglow Art Space, 타이난, 대만
〈대부하우스 - 창작의 시간〉 단체전, 선감어촌체험마을, 안산
〈spiral life〉 단체전, 수창정춘맨숀, 대구
〈264, 내가 바라는 손님〉 단체전, 자하미술관, 서울
〈서로 다른, 집집〉 단체전, 갤러리 스틸, 안산

2020
〈창백한 푸른 빛〉 개인전, 갤러리 3안, 서울
〈초대거부 Part 2〉 단체전, 단원미술관, 안산
〈초대거부 Part 1〉 단체전 고양 아람누리미술관, 고양
〈용동묵조〉 단체전, 타이중시 다문 문화센터, 타이중, 대만
〈LOVE&RESPECT - 애(愛)경(敬) 공모전〉 단체전, AK갤러리, 수원
〈넘치는 수목 조류〉 단체전, 신타이베이시 예술센터, 타이베이, 대만

2019
〈풍경〉 개인전, 탐엔탐스 역삼2호점, 서울
〈The landscape〉 개인전,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목·비목, 대한 당대 수묵교류전〉 단체전, Aglow Art Space, 타이난, 대만
〈목·비목, 중한 당대 수묵교류전〉 단체전, 상예술센터, 쑤저우, 중국
〈제 21회 단원미술제〉 단체전, 단원미술관, 안산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단체전, 노원아트갤러리, 서울
외 다수

 @chommi_chommi_

김 희 진

Kim HeeJin
b.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졸업

2023
〈앞 UP 2022〉 단체전, 갤러리 그리다, 서울
〈Prism〉 단체전, 갤러리 내일, 서울
〈Drawing Box - 첫 번째 상자〉 단체전, 아트레온 갤러리, 서울

2022
〈아파트 가변설치〉 개인전, 갤러리 그리다, 서울

2021
〈Young&Young Artist Project_기억을 잇다〉 단체전, 영은미술관, 경기
〈청년예술상점〉 단체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0
〈아파트, 사진의 그림자〉 개인전, 아트레온 갤러리, 서울
〈그 도시를 기억하는 법〉 단체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19
〈즐거운 나의 ○○〉 단체전, 휴맥스 아트룸, 경기

2016
〈far_apart〉 개인전, 갤러리 너트, 서울
〈더 키친: 2015 경기창작센터 그룹전〉 단체전, 경기창작센터 상설전
시절, 경기

2015
〈Young&Young Artist project 미디어(美, The Art)〉 단체전, 영은미
술관, 경기

2013
〈너를 이루는 그림〉 단체전, 신미술관, 청주

2012
〈밤 | 노랑〉 개인전, 갤러리 도스, 서울

 @helen__308
heejinkim.com

김 희 연

Kim HeeYon
b. 1985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2023
〈미기갤러리 1월 기획전〉 단체전, 미기갤러리, 서울

2022
〈House of Analog〉 단체전, 인사갤러리, 서울
〈21세기 회화〉 단체전, 인디프레스갤러리, 서울
〈공존〉 단체전, 아트비프로젝트, 서울

2021
〈시선의 각도〉 단체전, 서구문화회관, 인천
〈꺾〉 단체전, 읍스큐라, 서울

2020
〈김희연〉 개인전, 오스갤러리, 완주
〈모호하지만 빛나는 소우주〉 단체전, 단원미술관, 안산


2019
〈Coners 3: Cave and Garden〉 단체전, 킴인터치, 서울
〈고스트씨티〉 단체전, 스페이스55, 플레이스막, 서울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3x=8〉 단체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단체전, 금호미술관, 서울

2018
〈Soundless Dialogues〉 개인전,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17
〈스미는 바람〉 개인전, 공간시은, 전주

2015
〈Faded/Shaded〉 개인전, 갤러리 버튼, 서울

2012
〈경계의 그늘〉 개인전, 금호 미술관, 서울

 @hee_yon_kim

고 은 주

Go EunJoo
b. 1983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박사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한국화전공 석사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 학사 졸업

2023

〈잠시, 행복〉 개인전, 갤러리DOS, 서울

2022

〈몸바이 비엔날레〉 단체전, Sir.JJ.School, 몸바이, 인도

〈사회수다자들〉 단체전,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La Vida Brillante〉 단체전, 코리아하우스, 과나후아토, 멕시코

〈식물공감:자연을 듣는다〉 단체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이미지의 경계〉 단체전, 한벽원미술관, 서울

2021

〈Hidden Flowers〉 개인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일본

〈오산시립미술관 야외컨테이너전 쇼콘〉 단체전,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20

〈Hidden Flowers〉 개인전, CICA 미술관, 김포

〈작가발굴프로젝트 SIMA FARM〉 단체전,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19

〈어제와 다른 내일〉 단체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Digital Era - Rediscovery of HANJI〉 단체전, LA 한국문화원, 미국

2012

〈열려진 생명의 시론〉 개인전, 한원미술관, 서울

 @nivea0104

SeoulAuction × 아트경매

ONLINE AUCTION

8. 17^{THU} 2pm www.seoulauction.com

PREVIEW

8. 12^{SAT} - 8. 16^{WED} 서울옥션 강남센터 B4

Na KwangHo

#식물도감 #자연 속 서사 #예술과 장난 #창작의 순환

판화 기법으로 제작된 '도감' 시리즈는 강 주변의 언덕, 논밭으로 된 들을 직접 밭로 거닐며 해를 쬐고 촬영하여 수집된 식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 자연과 식물의 모습을 판화로 찍고 '도감(圖鑑)'과 '강목(綱目)'의 형식을 빌어 '역행과 불합리한 도감'을 제작한다. 식물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 삶, 관점, 이야기, 구전, 설화, 전설을 식물에 담아 설명하는 것이 내 작업이 위치하고자 하는 좌표이자 층위이길 원한다.

한편, 유희와 수채 작업은 예술과 놀이에 대한 성찰을 담아 냈다. 'Amusement' 시리즈는 놀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Amusement'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뜻하는 'museum'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 놀이와 미술이 공통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작품들은 모두 명화를 모방한 아이들의 그림을 다시 따라 흉내 내어 완성한 것이다. 아이들의 눈을 빌리는 것, 또 모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혼성모방은 여러 손을 두루 거치면서 어색함과 능숙함을 겸비하며 예술과 장난, 가치의 높음과 낮음,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위대한 작품이 갖는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창작의 순환을 불러온다.



SPECIALIST'S PICK 전유한

나광호 작가의 작품에는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엔 출품된 유희와 수채 작업에서는 익숙함과 낯섬, 능숙함과 서툰 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걸려있을 법한 명화 작품이 아이들의 시선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재모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화가 지닌 아우라와 아이들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순수함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작품의 베이스가 된 '루시안 프로이트'와 '앤드류 와이어스' 같은 거장의 작품들은 전문성과 특수성의 영역이 강조되는 권위있는 예술로 인식되는 반면, 나광호 작가의 작품은 놀이하듯 자유로운 형태로 그려진 날 것의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층위의 해석이 존재하며, 창조적 행위에서 오는 원초적 즐거움과 내재된 순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예술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Lot. 6 (detail)

Quinces

oil on canvas
72.7 × 91cm
2017

Koo SeoYi

Lot. 23 (detail)

작은 꽃 2

oil on canvas

33.4 × 24.5cm

2023

#가족사진 #과거로 향한 시선 #바래진 흔적 #감각적 경험 #풍경

2020년 이전의 가족사진 작품은 과거로 시선이 향한 작업이라면, 2020년 이후의 풍경 그림은 현재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있다. 가족사진 작업에서는 사진, 바래진 색, 흔적, 얼룩 등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통한 내적 정서를 화면에 나타내고자 했다. 반면, 풍경 작업에서는 '풍경', '흔적', '영상'을 주제로 하여, 당시 경험한 에너지와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작업을 통해 풍경을 마주했을 때의 비일상적인 감정과 감각이나 반응, 그리고 에너지 변화와 같은 경험의 순간을 화면에 담고자 한다. 동시에 그러한 감각적 경험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작업을 할 때도 육체적 행위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때의 감각이 다른 에너지로 발현되는 과정을 음미하려 한다.



SPECIALIST'S PICK 장윤나

작가 구서이의 이번 출품작은 두 가지 시리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가족사진 작업에서 사람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풍경 작업으로 구성됐죠. 작가는 과거에서 벗어나 바쁘게 지나가는 우리 삶 속의 순간들을 마주하며 그림으로 기록하죠. 눈으로 인식된 하나의 풍경이 회화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작가가 상기한 기억이나 감성이 함께 녹아든 장소로 재탄생합니다. 그의 회화는 관객의 시각은 물론 무의식 또한 자극하며,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기제가 서로 조율하는 일체화된 풍경으로 나타납니다. 걸으면서 발견한 장면들이나 주변의 새 지저귀는 소리, 풀 밟는 소리와 같이 스치고 흐르는 의식들을 그려낸 구서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각의 풍경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Jeon EunJin

Lot. 36 (detail)

Nocturnal Eyes

oil on linen
145.5×112.1cm
2022

#산책 #일상적 발견 #풍경의 에센스 #미완의 장면들

서사의 틈을 매우는 회화

나의 작업은 실제의 장면을 옮기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추려진 색이나, 흔적을 남기는 붓질로 완결하고자 한다. 회화가 오랜 시간 숙명으로 삼아온 눈속임 재현 **트롬프뢰유 Trompe-l'œil**의 기능에 충실히 따르기 보다는, 붓질의 흔적과 물감의 결을 그대로 드러내며 회화가 나에게 재현 수단이 아닌 목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옅은 유화로 한두 차례 표면을 칠하거나 그리는 방식은, 전통적인 유화표현방식 **불변, 견고, 밀도**와 상반된 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다. 지금 시점에서 영원 불변으로 남겨야 할 거룩한 풍경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 답으로 선택한 방식이다. 캔버스에 재현된 특정한 장면들은 너무 연약하고 가변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간추려진 색상, 흘러내리는 물감자국, 뭉개진 붓질과 같은 회화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장면 자체를 보여 주는 것보다 이를 바라보는 나의 양가적 감정이나 무력감, 되풀이되는 미완성의 상태 같은 것들을 투영하고자 한다. 풍경은 점점 간소화되거나 페이드 아웃되고 나의 태도나 기억과 물질만을 캔버스에 남겨놓고자 한다.



SPECIALIST'S PICK 전유한

전문작가는 작업실 근처를 산책하며 보게 되는 자연과 식물, 구조물이나 장면을 포착해서 때로는 넓은 범위의 묘사로 때로는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여 그려내고 있습니다. 직접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래의 풍경에서 더하기와 빼내기를 반복하며 작가가 선별한 최후의 풍경만을 남겨놓는 것이죠. 작가는 이렇게 남겨진 풍경을 '풍경의 에센스'라 부릅니다. 거친 린넨의 직조감 위에 불완전한 붓질과 경계가 흐릿한 색채로 채워진 '풍경의 에센스'는 화폭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날만큼 옅은 면적과 표면의 마찰을 저항하며 눌러 내려간 거친 면적이 교차하는데, 이는 풍경이 지닌 감각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전문작가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om Jin Yong

#우리 주변의 구석진 곳 #버려진 장소에 자라나는 것들 #현실의 풍경과 중첩된 꿈속 이미지

초창기 작업은 꿈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옮겼다. 꿈속에 나오는 인물, 사건, 풍경들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근접하게 표현하거나 비슷한 사건들을 재조합해서 이미지로 재현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보이는 풍경과 중첩되고 꿈속의 이미지들은 현실 풍경과 함께 그림으로 드러나 보이게끔 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한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개간 사업과 도시 계획으로 본래의 생태계가 사라진 곳이 많다. 그런 곳들을 산책 하다 보니 방치되고 버려진 땅에 역세게 자라는 이름 없는 잡풀, 마른 건초, 나뭇가지, 쌓여있는 퇴적물 등이 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현실 풍경을 꿈속 풍경과 함께 옮기게 되었다. 작업 매체는 주로 유화를 쓰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목탄이나 펜 등으로 드로잉을 하고 있다.



SPECIALIST'S PICK 장윤나

작가 범진용은 우리 주변의 구석진 곳이나 버려진 장소에 자라나는 것들을 그리며 그 곳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겹쳐 보입니다. 덩달하게 그려낸 풍경은 작가가 살아온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재현한 장면이지만 어딘가 낯설기도 하죠. 작가는 단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의식이 나 꿈, 우연과 같은 불완전한 기제를 함께 작업에 대입합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 안으로 자신의 꿈속 장면을 오버랩 시키면서, 익숙한 풍경에서도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손끝을 자극하는 물감의 흔적들을 거칠고 날쌔지만 정직하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의 작품에선 잡풀들이 뒤엉킨 부분을 자유분방하면서도 촘촘하게 교차된 빛질로 나타나며 단색톤에 가깝게 조율된 색채와의 조화를 이룹니다.



Lot, 41

풍경

oil on canvas
45.5 × 53.2cm
2015

Yang SeungWon

#디지털 이미지 #사실과 가공의 경계 #인식의 과정 #사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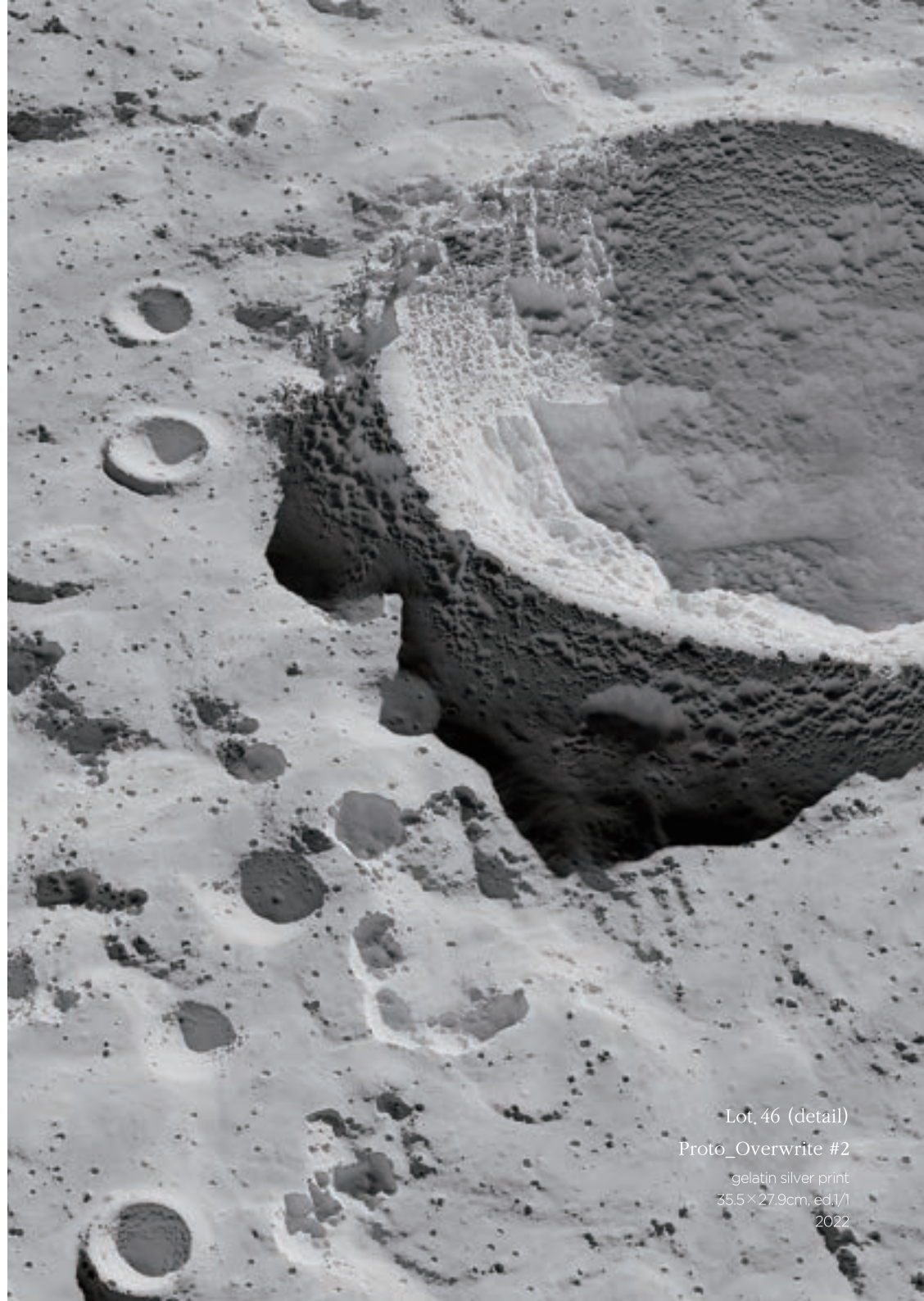
나의 작업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실과 가공의 경계를 흐드는 유사 이미지로 인식론과 사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마주한 상황이나 풍경을 인식하는 과정, 당대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며 당연시 여겨지는 인식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확장된 개념으로 실제와 허구의 접점이 만들어내는 이질성을 포착하기도 하고, 자연과 모방의 간극에서 볼 수 있는 물질성의 차이, 지역과 장소의 표피적 이해에서 발생한 맥락이 거세된 현실의 풍경에 의문을 가지며 작업하고 있다.



SPECIALIST'S PICK 장윤나

양승원 작가는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어내는 디지털 이미지 기반의 작업을 전개하며 실제와 허구 사이의 발생할 수 있는 인식 과정에 주목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작가의 작업은 여러 시리즈의 작업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출품작 중 'Proto_Overwrite' 시리즈는 우주의 표면과 같이 사람들의 손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는데, 직접 모델링한 허구의 3D 가상 공간을 실제 풍경처럼 연출하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 하지만 낯설게 보이는 가상의 이미지를 사진의 영역으로 불러와 실제와 모조 사이 모호한 경계에서의 아이러니함을 작품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의 이전 작업 중 하나인 'Real and Figure'는 익숙한 현실 속 풍경을 낯설게 뒤바꿔 촬영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물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사진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비틀기도 합니다. 적외선을 활용해 콘크리트 아파트의 풍경 속에서 인공과 자연물에 다르게 투과되는 빛의 차이를 두고 낯선 풍경을 강조한 이미지 실험 중 하나이죠. 출품작의 또 다른 시리즈인 'Covered Moment'는 지역 마을의 얼음 축제에서 발견한 분수의 청명한 이미지와는 대조된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흉내 낸 아이러니한 모순에 주목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장소와 누리고 있는 본질이 희석되고 왜곡되어 모호해지는 현상을 작업을 통해 드러내 보이자 합니다.



Lot. 46 (detail)

Proto_Overwrite #2

gelatin silver print
35.5×27.9cm, ed.1/1
2022

Im CheolMin

Lot. 55 (detail)

계 1

Indian ink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en panel
70×140cm
2021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스스로가 '희미' 하다고 느끼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누군가로 부터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갖게 된 어쩔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흐릿한 스스로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며, 풍경작업을 시작한 이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를 통해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세계는 나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나는 세계와 나의 관계를 희미하게 그린 풍경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춰보고 있다. 나의 작업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자 '나'라는 대상을 구축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견뎌내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누군가 쉽게 별거 아닌 것 처럼 말하거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여기 아픔을 겪는 이웃이 있고, 여기 노력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약소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희미하게 그린 풍경 #어둠과 밝음 #불안감 속 희망



SPECIALIST'S PICK 장윤나

임철민 작가는 자신의 회화에서 세계의 형태와 관계를 먹을 이용해 풍경 이미지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는 주로 여행지에서 자신이 목격한 인상적인 장소를 작품의 프레임으로 담아내는데, 오로지 농담으로만 표현하지만 그의 작업 속 장소들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작가는 오히려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다며,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 다소 무겁고 어두운 톤의 수묵 작업을 보여줍니다. 최근 그는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작업실을 이주한 뒤, 지역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이 담긴 장소를 찾아 풍경으로 풀어내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희미한 빛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불안감을 상쇄시켜줄 희망처럼 느끼길 바라며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Kim HeeJin

#아파트 #한국화 #우리동네 이야기 #대상만의 서사

아파트가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한국화 재료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아파트만의 이야기를 찾고, 장소로 찾아가 사색하고, 이후에 색채나 형태, 혹은 설치 방법에 변화를 주며 그 대상만의 서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2016년부터 3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다루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보편적 풍경이 되어버린, 비슷하면서도 그러나 조금씩은 다른 아파트의 모습을 그만의 이야기나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여 다양하게 풀어내 보고자 합니다.



SPECIALIST'S PICK 박유리

현대 한국의 보편적인 주거문화인 아파트는 획일적이고 딱딱한 조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변화해 왔습니다. 김희진 작가는 아파트의 획일적이고 불안한 면모를 수직적인 선과 단조로운 색감으로 표현하여, 조형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면에는 건물을 짓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끝끝내 그 지역을 떠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의 생략된 풍경은 관객에게 상상의 요소가 되어, 아파트에 대한 각자의 서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Lot. 67 (detail)

공든탑 2 (diptyque)

color on silk mounted on wooden panel

full 200×72.6cm

2016





Kim HeeYon

#일상의 풍경 #인공물 #자연 #색감의 대비

나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평범한 풍경, 그리고 인간이 남긴 인위적인 흔적과 자연이 공존하는 양상을 회화로 재현한다. 인공과 자연이 시간을 꺾어내는 방식이 묘한 간극을 이룬다고 여기며, 다양한 시간과 서사를 간직한 장소를 눈여겨본다. 화면에 대상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색감의 대비를 극대화하여 평범한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전환시켜 현실을 마주하는 각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환기시키고자 한다.



SPECIALIST'S PICK 박유라

작가는 일상에서 흘러가듯 접하는 풍경들을 포착하여 화폭에 담아냅니다. 집, 간이역, 담벼락 등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은 없고, 방치된 나무와 풀들, 그리고 사이사이 드리워진 그림자가 쓸쓸한 향수를 자아냅니다. 김희연 작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강한 색감의 대비로 표현하여 평범한 일상 풍경을 극적으로 묘사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부터 촉발된 작가 내면의 향량한 초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며, 각자의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Go EunJoo

#불안의 시대 #행복을 찾아서 #전통 #꽃의 의미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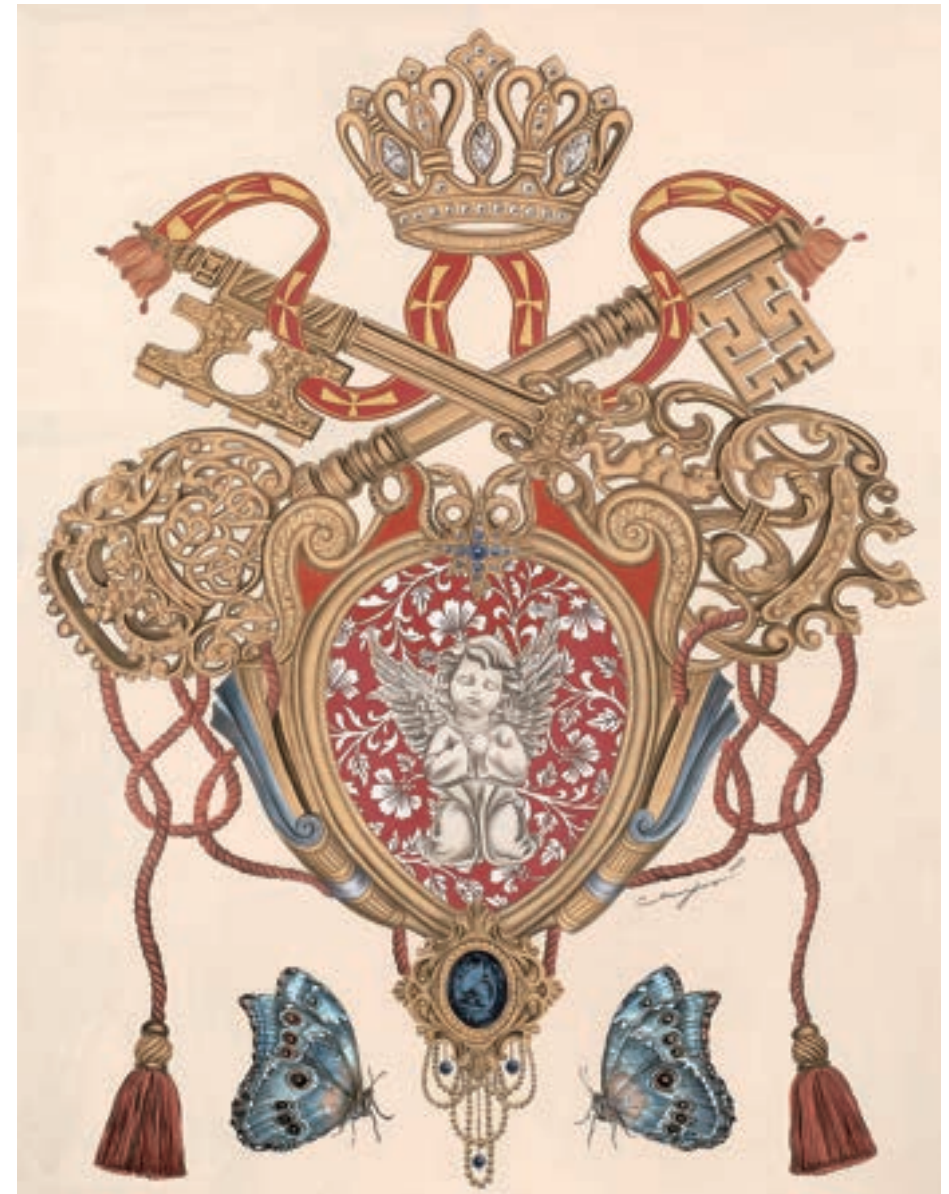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는 '불안의 시대'라 불릴 만큼 '불안'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개념으로 자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이나 보험 등이 상품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적이나 전통적인 주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불안의 해결책을 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한국 고대 신화에 나타나는 꽃을 소재로 모성성(母性性)을 시각화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두 아이를 가졌을 때 예기치 못한 조산의 경험으로 인해 부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불안'이라는 우리 시대의 정서에 주목하게 됐다.

나는 일상의 걱정과 불안을 부적에서의 보편적 상징성을 지닌 그림·문자·기호를 차용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 전통적인 기원문화의 '부적', '설위설경(設位設經)', '지화(紙花)' 등을 작업의 예술적 도구로 차용하면서, 우리 전래의 보편적 상징성과 대칭 구도, 오방색의 조화 로움이 예측 불가능한 불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



SPECIALIST'S PICK 박유리

고은주 작가는 이전부터 꽃의 전통적인 의미를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가 개인의 불안한 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부적의 대칭 구도와 오방색을 차용하는 동시에, 비단, 금박, 은박 등을 사용하여 부적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에는 작가의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피어난 '가족의 안녕'이라는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작가가 표현한 간절한 소망을 통해, 그가 느꼈던 위로와 치유의 감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Lot. 82

창성부 II

mineral color, gold leaf and silver leaf on silk
mounted on wooden panel

119×92cm

2023

ZERO BASE

초대작가

시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떨림과 긴장.
같은 마음이었다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초대 작가의 경매 출품작 낙찰 수익은 아트경기 작가님들의 출품을 지원하는 후원비로 전달됩니다.



Lee JongKie



Choi Hyeji

Lee JongKie

ZEROBASE v4 (2020.05) 참여작가



Lot, 90 (detail)

한강 2-3

acrylic on canvas

50.4×117cm

2022



Artist Talk

Q. 작가님과 작업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만화 속 주인공을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함께 공존하는 그림을 그리는 팝아트 작가 이종기입니다.

Q. 제로베이스 참여 이후 작가님의 요즘 근황은?

저의 미술 인생은 제로베이스 참여 전과 후로 완벽히 구분됩니다. 많은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아트 페어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죠. 지금 제 작업실에는 우주와 마법의 행성 *Enchanted Planet*을 주제로 한 신작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1956년에 태어나 1970년대의 음악을 들으며 20대 시절을 보낸 저는

1938년에 탄생한 수퍼맨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과 청화백자 연못에서 바트 심슨이 헤엄치며 노는 장면들을 담아내고 있죠.

Q. 선순환 구조의 경매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신 까닭은?

2020년 제로베이스 V4에 참여한 작가로서 제로베이스가 미술시장 진입을 위한 등용문이 되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로베이스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좋은 작가들이 컬렉터들에게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경매에도 참여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로베이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제로베이스 경매에 먼저 참여했던 작가님으로서 이번 경매를 통해 처음 제로베이스에 참여하는 작가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는?

제게 제로베이스는 즐거운 첫 경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매의 시작과 끝은 기대와 걱정이 반반인 긴장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컬렉터가 처음 만난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호수를 나와 보다 넓은 바다에 나의 보트를 타고 떠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Q.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영향력 있는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작품은 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트렌디하고 영하고 힙 합니다. 제 작품들은 어려운 작품들이 아니지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쉬운 이야기만을 담진 않죠. 그럼에도 제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친숙하며 언제나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Lot,86
Enchanted garden - Rabbit
acrylic on canvas
46×46cm
2023



Lot,88
Enchanted White - Dragon
acrylic on canvas
53.5×46cm
2023



Lot,87
Enchanted White - Dragon
acrylic on canvas
53.5×46cm
2023



Lot,89
Enchanted White - Haetae
acrylic on canvas
73.3×61cm
2023

Choi HyeJi

ZEROBASE v10 (2021.10) 참여작가



Lot. 91

<LIFE> Bondi Beach

mixed media
72.7×116.8cm
2023

Lot. 92

<LIFE> Bondi Beach

mixed media
130.3×89.4cm
2023



2023아트경기×ZEROBASE 경매 출품작 작업 중인 모습

Artist Talk

Q. 작가님과 작업 소개

안녕하세요, 다양한 재료를 찾아 라이프를 기록하고 있는 최혜지입니다.

Q. 제로베이스 참여 이후 작가님의 요즘 근황은?

하반기 개인전과 해외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재료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Q. 선순환 구조의 경매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신 까닭은?

낙찰 수익의 일부가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선정된 작가님들에게 지원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갖게 되기까지 각 지원 사업에 참여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제로베이스는 낯설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발을 딛는 분들께도 이번 제로베이스가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제로베이스 경매에 먼저 참여했던 작가님으로서 이번 경매를 통해 처음 제로베이스에 참여하는 작가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는?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고, 또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건강 잘 챙기며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영향력 있는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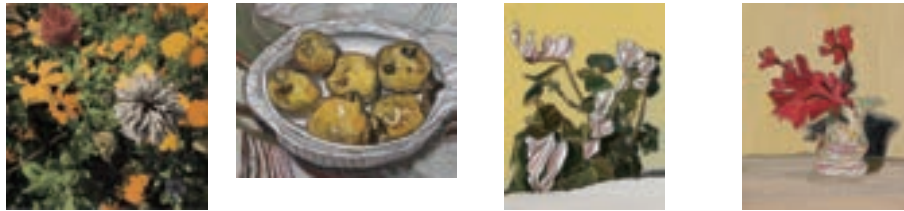
전에는 몰랐는데, 제 주변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50대, 70대가 되어서도 작가로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꾸준히 제 작업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NA KWANGHO

- 1 코스모스 20x20cm 2 루드베키아 20x20cm 3 질경이 20x20cm 4 수레국화 20x20cm



- 5 루드베키아와 수레국화 20x20cm 6 Quinces 72.7x91cm 7 Cyclamen 116.7x91cm 8 Flowerpot 91x72.7cm



- 9 난로 53x45.5cm 10 Christina's Tea Pot 45.5x53cm 11 집 72.7x91cm 12 로즈힙 45.5x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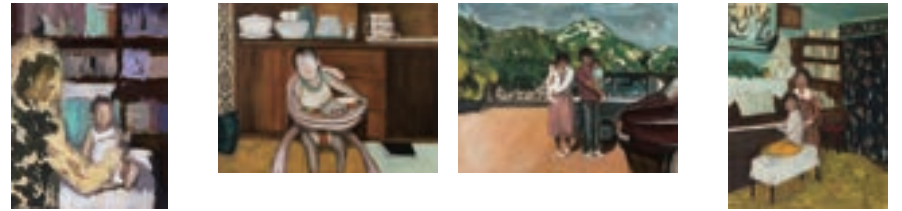


- 13 Acacia 72.7x116.7cm 14 열린 창고 80.5x120.5cm 15 붉은 헛간 45x120cm 16 붉은 창고 107.5x1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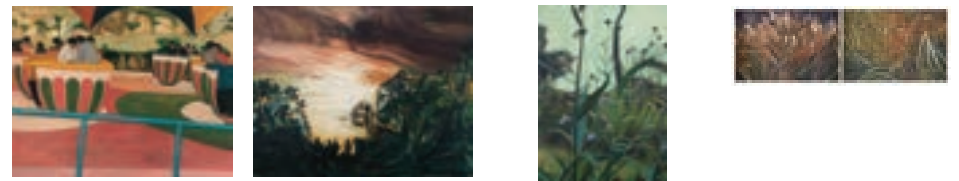


KOO SEOYI

- 17 1982년 8월 어느 날 53x41cm 18 1985년 3월 21일 41x53cm 19 1985년 5월 5일 41x53cm 20 1993년 10월 3일 53x4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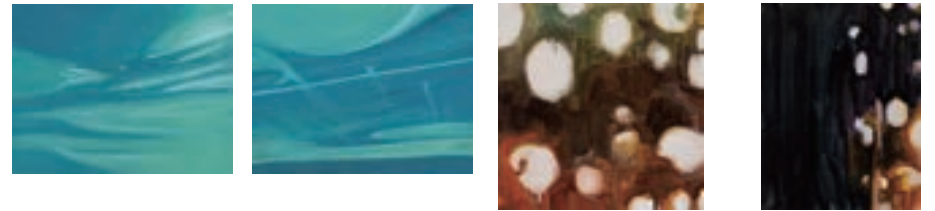


- 21 빙빙 도는 2 91x116.8cm 22 노을 91x116.8cm 23 작은 꽃 2 33.4x24.5cm 24 밤에 본 갈대, 해 질녘 갈대 (2 works) each 12.5x18cm



JEON EUNJIN

- 25 여름 하늘 2 41x53cm 26 여름 하늘 41x53cm 27 빛 자국_Orange 27.3x27.3cm 28 빛 자국_Purple 41.5x32cm



- 29 빛 자국_Pale 38x38cm 30 빛 자국_Plain 38x38cm 31 빛 자국_Closer 80.5x80.5cm 32 푸른 질서 80.5x80.5cm



33 흰뚝별
116.8x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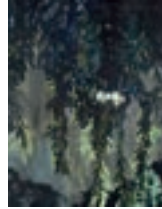
34 가득
73x116.5cm



35 깊은, 건너 09
112.1x162.2cm



36 Nocturnal Eyes
145.5x112.1cm



BEOMJINYONG

37 풍경
23x16cm



38 풍경
23x16cm



39 풍경
53.4x33.8cm



40 풍경
45.5x53.2cm



YANG SEU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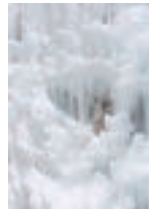
41 풍경
45.5x53.2cm



42 풍경
145.3x112.4cm



43 Covered Moment #8
40x27cm
ed.1/5



44 Covered Moment #9
40x27cm
ed.1/5



45 Proto_Overwrite #1
35.5x27.9cm
ed.1/1



46 Proto_Overwrite #2
35.5x27.9cm
ed.1/1



47 Proto_Overwrite #3
35.5x27.9cm
ed.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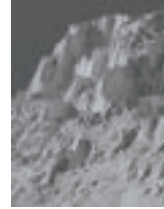


48 Proto_Overwrite #4
35.5x27.9cm
ed.1/1



IM CHEOLMIN

49 Proto_Overwrite #5
35.5x27.9cm
ed.1/5



50 Real and Figure 008
80x100cm
ed.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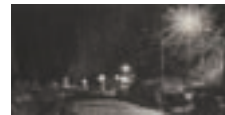
51 섬 8
140x70cm



52 섬 6
140x70cm



53 계 4
97x193.9cm



54 계 3
97x193.9cm



55 계 1
70x140cm



56 거절할 수 없는 제안
70x140cm



57 반사 Reflection
45.5x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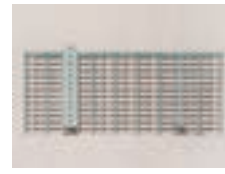
58 푸른 경계 3
90.9x116.8cm



59 주관적인 풍경 060
- 우리의 안산
130.3x16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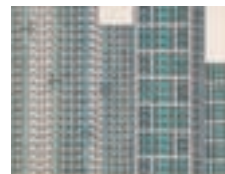


60 신반포 2차
56.7x76.8cm



KIM HEE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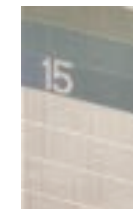
61 창문
58x74.5cm



62 창문
58x69cm



63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74.5x45.5cm



64 분절된 아파트 (부분 1)
71.3x47.5cm



KIM HEEYON

65 분절된 아파트 (부분 2)
54.7x47.5cm



66 분절된 아파트 (부분 3)
72.7x4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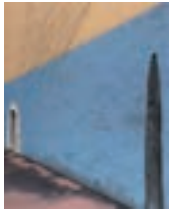
67 공든탑 2 (diptyque)
full 200x72.6cm



68 숲
150x50cm



69 Leaning Against the Wall
162x129.6cm



70 한낮 Midday
30.5x30.3cm



71 하얀 지붕
33.5x45.6cm



72 파란 지붕
33.5x45.5cm



73 숲
53x45.7cm



74 구멍
33.5x53cm



75 빨간 파란 지붕
50x60.5cm



76 입시성취부 I (2 works)
each 30x20cm



77 비밀부II
35x40cm



78 비밀부I
35x40cm



79 나비부
25x40cm



80 공명부
46x46cm



81 창성부 I
119x92cm



82 창성부 II
119x92cm



83 창성부 III
119x92cm



84 Pray for a child_점지 I
78x61cm



85 Pray for a child_점지 II
78x61cm



GO EUNJO

73 숲
53x45.7cm



74 구멍
33.5x53cm



75 빨간 파란 지붕
50x60.5cm



76 입시성취부 I (2 works)
each 30x20cm



77 비밀부II
35x40cm



78 비밀부I
35x40cm



79 나비부
25x40cm



80 공명부
46x46cm



by SEOULAUCTION

ZEROBASE

평창동 본사

서울 종로구 평창31길 11 Tel. 02-395-0330 Fax. 02-395-0338 www.seoulauction.com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864 Tel. 02-545-0330 Fax. 02-545-0338

부산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4F Tel. 051-744-2020 Fax. 051-744-6255

Hong Kong Limited

2065, 20/F, Infinitus Plaza, 199 Des Voeux Road Central, Sheung Wan, Hong Kong Tel. 852-2537-1880 Fax. 852-2537-2810